

기독교대학 교수의 인식조사에 의한 중요성공요인의 분석과 성공구조방정식 모형 연구*

**Analysis of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study of success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perception survey of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s**

박문식 (Moon-Shik Park)**
김재철 (Jae-Chul Kim)***

ABSTRAC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we examine the position and attitude of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in a social environment that is said to be a period of great transformation. We also examine the diagnosis and alternative suggestions for the crisis of identity that has been raised for decades amidst a sustainable financial crisis caused by a serious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By synthesizing historical and theoretical papers and materials, we examine the nature and value of Christian universities needed in the present era.

It is emphasized that in-depth efforts and research at the institutional and association level are needed for Christian universities to be maintained, developed, and successful in the coming era. Looking at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Korea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do not show a variety of theore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In addition, through a literature survey in Korea, it was revealed that most studies on Christian universities are qualitative studies on identity and that there is no research on the oper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is paper, as an attempt at quantitative research, in the case of Hannam University as a case university, we research the perceptions of professors to quantitatively analyze and present the attributes of success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the factors necessary to achieve that succes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organizational theory, innovation theory, and experience working at a Christian university for over 20 years, we developed a question inventory

* 2023년 11월 8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1월 30일 게재확정

** 한남대학교(Hannam University) 교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ms.park@hnu.kr

*** 한남대학교(Hannam University) 교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jckim@hnu.kr

to find the success attributes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CSFs) of Christian universities. We conduct a survey study using those questions, establis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present causal relationships and mediating effects between important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the success of Christian universitie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College success attribute, Critical success fact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ccess structural equation model

I. 서론

위키백과에 의하면 국내에는 93개의 기독교대학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가톨릭 배경은 13개, 개신교 배경은 80개이다. 개신교 신학대학 13개를 제외하면 67개 개신교 종합대학이 존재하고 이 중에서 기독교 교과목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학은 60개 정도이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 기독교대학의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종교성이 없는 일반 대학인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국의 기독교대학은 그런 경우는 없다. 2022년도 국가통계에 의하면 대학의 수는 총 336개교이므로 이 중에서 기독교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해당한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대학은 국가 고등교육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년 전에 기독교대학이 여타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수업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 심한 압박에 직면하면서 기관의 역사, 전통 및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극한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Dockery & Gushee, 1999). 재정확충에 대한 어려움은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로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데에 따른 것과 교육에서의 첨단기술의 도입에 따른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양측에서 발생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되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환경이 각각 약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맞이하는 상황과는 잘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매우 두드러진 외적변수 중에 하나로서 강력한 정부주도의 대학정책을 추가할 수 있겠다.

가중되는 기독교대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위기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탐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기관의 차원에서 탐색, 협력, 제도적 접근 등은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주의 경우 1976년 설립된 기독교대학협의회(CCCU,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2023)를 중심으로 188개의 복음주의 계열의 고등교육기관이 연합하여 대응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1993년 조직된 한국기독교대학연맹은 초기의 적극적 활동에 비하면 2023년 현재 명목상의 35개 회원교만을 가지고 있을 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기독교대학연맹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 1976년 설립된 아시아기독교대학협회(ACUCA, 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Asia, 2023)에서도 한국 회원의 6개교는 한국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변형에 걸맞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독교대학은 하나의 고등교육기관이고 비영리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업과 같은 영리 법인의 성공은 비교적 명확하게 ‘이윤의 추구’에 있으며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사회적 책무’가 부가된다. 반면에 비영리 법인인 기독교대학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는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기독교대학은 실패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대학의 성공을 분명히 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대학의 성공은 뚜렷한 준거가 없이 설립자 또는 경영자의 독자적인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사례대학인 한남대학과 같이 미국 선교재단으로부터 완전히 이양된 법인의 경우 그 철학과 의지마저 불분명하게 되어 대학은 지향점을 잃게 된다. 따라서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이며 건학이념에 걸맞은 성공을 정의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헌조사방법을 통하여 기독교대학과 기독교교육을 둘러싼 문제들과 그 본질을 조사한다. 그리고 고찰을 통해 기독교대학의 현상들과 원인들을 도출한다. 여기서 도출된 요인들을 가지고 양적연구 방법으로서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가정한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즉, 기독교대학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형을 중요성공요인(CSFS, Critical Success Factors)들을 중심으로 구조방정식모델링(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수립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실증연구방법을 사용하며 현재 사례대학인 한남대학교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인식을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사회과학적 통계기법으로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II-1. 기독교대학의 유형

먼저 기독교대학의 유형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형태론적 유형으로서 신학교와 종합대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종합대학에는 국립, 사립, 교립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과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교단, 로마 가톨릭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내용론적 구분으로서 니버(Niebuhr)의 기독교와 문화의 상호관계 모델을 기독교대학의 유형에도 적용하여 대립모델(Christ against culture), 일치모델(Christ of culture), 지배모델(Christ above culture), 병행모델(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변혁모델(Christ transformer of culture)로 분류하는 것이다(조성국, 2005).

셋째로는 목적론적 구분으로서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따른 유형이다. 크게는 학문의 수월성의 추구하고 지도적 기독교 인재의 양성을 들 수 있고 학교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 기독교 원리, 기독교 교의를 근본이념 또는 철학으로 표방하면서 학문을 심화 발전시키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지도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므로 그 차별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김동우, 1998).

어느 범주의 기독교대학이던지 간에 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대학의 위기는 대학으로서 퇴보 및 소멸에 대한 것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60년에 1백만명에서 2000년에는 63만명, 2020년에는 27만5천명으로 급감하였다. 이것은 20년 후에는 현재 대비 대학 입학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현재도 이미 입학정원이 입학인구를 10만명 이상 상회하는 마당에 이것은 향후 20년간 대학 간의 극심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양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속화의 길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대학들은 제대로 된 확립기를 다지지 못한 채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위기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한 세기 동안의 기독교대학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었던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학이 가져야 할 가치와 본질은 무엇이었었던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기독교대학이라는 주제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연구 분야 또는 연구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겠다.

II-2. 기독교대학의 문제

1906년 평양에 숭실대학을 설립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설립된 기독교대학들은 교파,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15년 서울에 조선기독교대학(1917년 연희전문학교)이 설립되면서 종교성(기독교성)과 학문성(근대성) 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옥성득, 2021).

“대학이 한 문명의 지식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기관이라면, 신설되는 조선기독교대학이 지향하는 문명은 근대(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기독교 문명인가 아니면 근대(20세기 초 일본의) 세속 문명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었다. 평양은 후자 측면이 약했고, 서울은 양자를 아우르면서 우위를 차지했다.”

기독교대학이 본격적으로 종합대학으로 도약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세속화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가 가중되었고 하나의 일반대학의 대안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대학의 본래적 모습을 지닌 독

특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1966년 기독교 대학교육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오은수(1996)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늘 한국 기독교대학들은 중대한 자기결단을 해야만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대학의 질적 가치가 일반대학을 능가하는 참다운 기독교대학을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낙오의 길을 걷고야 말 운명의 기로에 섰다고 본다. 일반대학 수준 이하의 기독교대학의 운영은 세상의 빛도 되지 못하리니와 기독교대학의 특이성을 옹기 살리지 못하면 길가에 밟히는 맛 잃은 소금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는 기독교대학이라는 이름을 갖는 하나의 대학을 해보는 시기는 지났다.”

기독교대학이 일반대학들과 경쟁하면서 특히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지역 기독교대학들이 겪는 학생유치의 어려움은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였다. 1962년 계의돈(Roberet L. Goette)의 미국 선교재단에 보낸 선교편지를 참조해 볼 수가 있다(이정순, 2022).

“정부가 우리에게 허락한 최대 등록 인원은 340명입니다. 현재 학생은 그 절반 정도입니다. 많은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 대도시인 서울로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만 달러 상당의 설비를 주문했습니다. 실험실의 설비와 공간을 이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재정과 기도 후원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의돈은 23세에 플로리다대학에서 화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듀폰에서 근무를 하다가 내한하여 1960년부터 1987년 까지 사려대학의 교육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화학과를 발전시키고 ‘성경과 과학’을 강의하였으며 KIST 설립과 한국창조과학회의 설립에도 관여하였다. 1962년 김기수도(Keith R. Crim) 선교 편지를 통해 신입생 수급의 문제와 교수 수급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최영근 외, 2022). 여기서도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수의 안정적인 수급의 문제를 앞서 내다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펴면서 대학생 수를 급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서울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 정책의 영향을 더욱 심하게 받아 신입생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대전대학이 기독교인 교수들만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학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헌신된

기독교인 교수를 계속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일제 식민 치하에서 병원과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면서 각종 통제를 겪어 보았고 끝까지 학교를 지키다가 신사참배의 강요를 당하면서는 1936년에 모든 학교의 폐쇄를 결정했던 경험을 공유 하였던 까닭에(최영근, 2022) 정부의 허가(permit)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대학의 허가제가 아니라 일정 수준을 확인해 주는 인증제(creditation)가 있을 뿐이다.

1998년 한국의 7개 기독교대학들의 교육이념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의 요인들을 제시한 논문이 있다(김동우, 1998). 외부적 원인들로는 국가주도의 교육정책, 기독교대학의 생존을 위한 현실타협, 기독교대학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들었으며 내부적 원인들로는 교육철학의 부재, 교육의 이원적 형태 등을 꼽았다. 기독교대학이 세속화를 지향하게 되는 것은 국가를 의존하고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이며 그 문제의 밑바닥에는 재정문제가 깔려있고 대학이 형식적으로는 서구적 대학이면서도 재정은 자립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인다. 즉,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독교대학이 정체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저자는 한국이 신자유주의 경제모델로 전환되고 그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대학교육개혁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면서(박문식, 2010) 더욱 심화되어 버린 대학의 양극화와 질적 저하를 지적하였다.

“정부는 선정대학 평가에 사용되는 정책지표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학의 구조 및 교육과정의 방향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2014년 기독교대학 정체성 회복을 위한 이신형의 연구에서는(이신형, 2014) 두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양승훈은(1996)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념과 가치관의 차원에서, 김세열은(1997) 대학교육의 장에서 ‘학문공동체’의 관점에서 정체성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용훈(2003)은 정체성의 위기로서 지성의 반종교화, 입학 경쟁 서열화, 기독교 문화의 약화, 선교적 헌신과 열정의 약화를 들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세계관의 세속화, 정부 통제, 대학의 거대화, 신앙과 학문의 연계의 부족을 들었음을 밝혔다. 이신형은 결론적으로 종합하여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구성원 주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학문 활동, 채플과 기독교 필수과목으로 정리하였다. 즉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기독교수의 자아정체성의 확립에서부터 시작하여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을 통하여 가르침과 배움에서 확립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그는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펼쳐 나가야 할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여러 광범위한 주장들을 종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이신형, 2014).

“필자의 인식에 의하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회복은 기독교대학 교수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독교대학 교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학생들의 정체성, 즉 기독교인 학생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

한 세기 동안의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일제 치하에서는 민족 운동가, 지식인을 배출하였고 해방 이후로는 사회를 개화시키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설립 초기로부터 교과문제, 재정문제, 정체성의 문제는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재정문제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 동안 새로운 학문 분야의 도입에 따른 막대한 인프라 투자비용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학생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입학하는 1980년도부터는 양적 팽창이 학교의 재정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기독교대학들은 거대화되었다. 그러나 거대화의 결과는 곧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대학들의 등록학생수가 휘튼, 켈빈, 도르트, 바이올라, 베델, 벨몬트, 리버티 대학 등 대략 평균 3~4천명인 것에 비하면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그 3~4배, 많게는 10배 정도이다. 기독교 대학의 문제에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거대화와 재정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3.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가치

기독교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일 것이다. 이는 보통 설립이념 또는 교육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이룩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명선언문을 제정하는데 사명선언문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누구나 이해가능하고 모두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엄선된 사명선언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립하고 동기를 부여 받아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또한 사명선언문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이루는 공통분모 즉,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그 목적에 헌신할 수 있게 한다(Woodrow, 2006). 기독교대학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명선언문은 마치 인류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창 1:28)과도 같은 것이다.

기독교대학이 세속화되어가는 첫 단계의 현상은 그 대학이 설립이념이나 교육목적 즉 사명선언문에서 종교적 연결고리를 벗어나는 것이며(Marsden, 1993)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이 종교적 사명에 맞게 교육철학을 수립하여 신앙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Hughes & Adrian, 1997).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 영역, 즉 교육과 연구와 행정의 제반 분야로 세분화되어 검토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체성 구현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수의 역할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사례들을 제시한 논문이 있다(이은실, 2012). 국내의 기독교대학들이 교수개발에 있어서 일반 교수법 강좌에 머무르며 보편적 연구 실적물 위주의 학문성과를 정년보장 승진의 중요 기준으로 삼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승진의 필수항목으로 반영하여 세속화를 막고 설립목적의 구현하는 주체로서의 교수들의 교수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에 있어서 사례대학의 교육이념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립위원 중 한 명이었던 서의필(John N. Sommerville)의 사명선언문과 현재 대학현장에 수록된 문구를 비교해 보고 그리스도 중심성,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서 하나님의 영역주권의 약화를 지적한 연구를 볼 수 있다(박문식, 2023). 서의필은 1954년부터 1994년 까지 대학의 설립위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종합대학으로서의 성장기까지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이루어진 베이비 붐,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와 철학, 그리고 하버드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글과 한문, 그리고 한국의 족보에 관한 탁월한 학자이자 교육 선교사였다(김남순·이기석, 2023).

방법론적으로나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대학들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강조한다(Holmes, 박진경 역, 1989). 그러나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설립목적의 추구하고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 사이의 과정에서 변천하는 역사적 궤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세속화의 과정에, 어떤 대학은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을 고수하면서 신앙, 영성, 선교를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장로교 계통의 아그네스스캇대학(Agnes Scott College)의 1889년 설립부터 2012년까지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여 사명선언에서 기독교가 삭제되었는지 정체성의 변화를 역사학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참조할 수가 있다(최영근, 2020).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학과 법학 및 역사학을 공부하고 교수이자 교육행정가, 외교관, 총장을 지냈던 이원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이원설, 정선희 역, 2017).

“선교사들이 기독교학교를 설립했던 목적은 단순히 신학문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 있어서 교육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교적 목표는 교육을 통한 선교였다. 기독교학교가 이 목표를 상실한다면 그 학문 수준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이미 기독교학교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다. 사실 선교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학문의 수준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원설은 지식사회의 도래를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사회’의 도래를 낙관적 측면에서만 보는 단견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서 정보화가 가져오는 각종 원치 않는 부산물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의 과다공급 (information glut)이 가져오는 혼란, ‘그레섬의 법칙’으로 나쁜 정보가 좋은 정보를 구축하는 현상, 그리고 지식이 악의 도구화하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원설은 기독교대학은 하나님중심세계관을 모든 학문의 기본에 두어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 국가관, 경제관, 역사관, 예술관 등을 정립하는 이른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야말로 기독교교육을 보다 유효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천지인’의 삼축 사상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즉, 그것이 기독교교육의 ‘특이한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의 본질은 현대 정보화 및 기술사회에서 더욱 그 유효성이 커져가며 학문적 수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덕적 수월성과 영적 탁월성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이 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원설은 이미 1980년대에 기독교대학과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이원설, 1998).

“첫째는 오늘날의 지식은 더욱 세분화, 다양화 되어 가기 때문에 자기 전공 이외의 것은 더 모르게 되며, 둘째 지식의 깊이가 더 할수록 모르는 것은 너무 많은 즉 지식의 유한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식이 높아갈수록 예측불허의 시대가 도래되는 무지혜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기독교대학의 본질은 교육과 연구와 행정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점(Christ-centeredness),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되 그 목적과 방향은 성경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진리이어야 하는 점(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인간과 기술에 있어서 다원화와 다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되 거기서 발생하는 근본 문제들의 해결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점(Cultural mandate)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의 구현은 인적 차원에서는 이사회, 총장, 교수, 직원, 학생 차원으로 전개되는 한편, 커리큘럼 차원에서는 채플, 성경과목, 교양과목, 전공과목, 그리고 다양한 영성체험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논리적 귀결로서 기독교대학의 본질은 기독교수의 개인적 신앙고백과 학교의 설립이념이 융합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며, 이것이 채플 등의 종교 과목과 일반 과목은 물론 다양한 성경과의 만남(encounter) 및 영성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초대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며 모든 학문과 지식활동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실체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고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믿음과 배움의 통합에 대한 이상과 실천을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4. 기독교대학의 조직론

그렇다면 기독교대학들은 위기의 타개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론과 어느 정도의 혁신을 전개하고 있는가? 2001년 1912개의 미국 및 컬럼비아 지역 비영리 대학을 대상으로 혁신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Obenchain, Johnson & Dion, 2004) 조직유형 중에서 기독교대학은 일반 사립대학보다는 더 자주, 공립대학보다는 덜 자주 혁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족벌형(clan), 위원회형(adhocracy), 위계형(hierarchy), 시장형(market)의 4가지의 조직문화유형 중에서 족벌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뚜렷한 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이론에서 이 네 가지는 각각 관계지향, 혁신지향, 위계지향, 과업지향으로도 불리며 관계지향 유형과 혁신지향유형이 가장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동수, 2008).

조직이론에서 족벌형은 응집, 참여, 팀워크, 가족분위기의 속성을 가지며 충성심, 전통, 대인밀착성을 응집요소로, 주요 전략으로는 인적자원, 헌신, 사기부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우세 유형 중에서는 시장형, 위원회형, 위계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을 통해서 혁신의 수준에 있어서는 위원회형이 우세하였고 그 다음은 우세유형 없음으로 나타났다. 위원회형은 기업가정신, 창의성, 적응성의 속성을 가지며 창업성, 유연성, 위기성을 응집요소로, 주요 전략으로는 혁신지향, 성장, 새로운 자원을 활용한다. 그러므로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학교의 장은 어떠한 하나의 유형에 매달리기 보다는 족벌형과 위원회형 즉 관계지향과 혁신지향을 기관과 조직에 맞게 접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기독교대학의 문제에 있어서 정체성 이외에도 거버넌스 및 조직 운영론 그리고 혁신이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이사회, 총장선출방식, 재정과 조직을 아우르는 경영방식 등은 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측면이 있었고 대학의 경영과 운영에 관한 논문이 아주 없었던 점을 볼 때 향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II. 기독교대학의 성공에 대한 인식

기독교대학의 성공은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이며 건학이념에 맞는 진정한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분 기독교대학은 교육목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왔으나 현

제의 기독교대학은 실패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대학이 생존하며, 발전하며, 최고의 가치인 교육목적을 이룩하는 것을 포괄하는 성공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담론적 수준이 아니라 경영학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여 기독교대학도 일반대학의 하나이므로 정부나 권위 있는 평가기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소위 객관적인 공시 척도가 있다. 둘째, 객관척도의 다른 한 가지로서 국가나 사회가 기대하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에 대한 대사회적 기여척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주관적인 척도로서 각 대학의 기독교적 설립이념에 따른 교육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는지에 대한 척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문헌조사연구나 학교의 정관 및 규정체계를 기초로 하여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이론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를 통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의 성공 척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조사연구를 통한 실증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마지막 성공 척도인 기독교대학의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성공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실증연구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일반적인 관심사항은 “기독교대학의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성공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성원의 인식에서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구성하는 중요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구성원의 인식에서 기독교대학의 성공속성과 중요요인들은 어떻게 관련되며 매개 또는 조절되는가?” 등이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조직효능감척도(OEI,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ventory)가 있다. 예를 들어 쿠크(Cooke, 1997)는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척도(OCI, Organizational culture inventory)를 토대로 하여 태도와 행동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미션과 철학(mission and philosophy), 인사 분야 역량(skills), 업무 프로세스와 방법론(systems), 문화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조직의 구조(structure)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한 논문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기독교대학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명확한 정체성의 재정립, 전통학습모델의 분절현상에 대한 적응, 인구통계변화에 따른 미래 직업세계를 대비시키는 유효한 대학으로의 발전 등의 도전들에 직면하여 이에 부응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정체성의 재확립, 대학 모델의 분절현상 극복, 경영방식의 전환, 적실한 학습법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고 미래 대학의 모델로서 평생학습의 고객으로서의 학생들과의 동반자적 학교 문화 등을 들었다(Reynolds & Wallace, 2016). 조용훈(2009)은 기독교대학에 대한 연구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이 일반대학과 다르게 가져야 할 특성들을 정체성과 교육이념, 교수와 직원의 근무 자세, 학교 분위기로서의 대학 문화,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원용하고 비영리 교육기관 및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여 구성원이 인식하는 대학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6개의 성공속성들을 정의하고 속성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구성원들은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정체성 신념’, ‘교육 콘텐츠’, ‘교수 인사’, ‘직원 인사’, ‘학교 분위기’, ‘재정 확보’로 인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각의 속성의 값들을 나열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서 응답이 가장 뚜렷한 것을 성공을 인식하는 참 값으로 보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성공의 속성에 ‘재정 확보’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본래 대학의 기본 전제조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기독교대학들의 재정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각각의 속성들에 대한 값으로서 네 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Timothy Keller의 문화모델로부터 착안하여(Keller, 오종향 역, 2016) 교육을 통한 선교적 사명이 있는 기독교대학에 적용한 것으로서 ①은 보수적 전통교수를 ②는 변혁주의를 ③은 적절성 모델을 ④는 자유주의 시장모델을 나타낸다. 만약 I의 ‘정체성 신념’ 속성에서 ③이 가장 우세하다면 구성원이 인식하는 대학성공의 지표는 적절성 모델 즉, ‘정체성 신념에서 정신은 계승하되 시대적 요구와 절충한다.’가 되는 것이다.

Table 1.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을 묻는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 목록

속성: ‘정체성 신념’ (Identity)	
I	학교의 비전과 사명 선언문에서 천명하는 신념 체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①창학 정신과 설립이념을 확고하게 유지한다.
	②정신은 계승하되 시대적 요구와 절충한다.
	③특수 이념보다는 보편적 이념으로 변화해 나간다.
	④시대의 변천에 맞게 완전히 변모한다.

속성: ‘교육 콘텐츠’ (Educational Contents)	
E	학교의 교육 콘텐츠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기독교 교과목과 채플을 의무과목으로 확고하게 유지한다.
	②교과과목의 유지보다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절충점을 찾아 나간다.
	③기독교 내용보다는 인문적 내용으로 변화해 나간다.
	④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독교적 내용을 삭제한다.

속성: '교수 인사' (Professor Personnel)	
P	교수의 임용과 진급 체계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학문적 수월성보다는 기독교적 사명 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②신앙 자체보다는 기독교적으로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③기독교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학문적 연구의 수월성을 강화한다.
	④기독교적 의무를 삭제하고 학문적 자유와 수월성으로 적용한다.

속성: '직원 인사' (Staff Personnel)	
S	학교의 행정 서비스와 인사제도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구비 할 뿐만 아니라 신앙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②업무적인 분야에서 신앙적인(사랑, 공정, 협력, 포용) 부분이 나타나도록 한다.
	③신앙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우선시한다.
	④신앙 내용을 배제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속성: '학교 분위기' (Mission Ethos)	
M	학교의 문화적 에토스 즉, 기풍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교육과 대학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과 기독교적 신앙을 포함한다.
	②교육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고 대학 생활에서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③신앙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더 많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
	④신앙 내용을 배제하고 시대적이고 보편적인 분위기로 변화한다.

속성: '재정 확보' (Finances)	
F	공적자금 등 외부 재원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외부 재원은 학교 설립 정신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②내부적인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하고 외부 재원은 보조 수단으로 한다.
	③외부 재원을 최대한으로 유치하여 학교 발전에 투입한다.
	④대학평가 등의 공적자금을 포함한 외부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IV.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중요 요인과 성공모형의 제안

중요성공요인(CSFs, Critical Success Factors)은 최고경영자가 사업을 번성케 하고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대로 가야만 되는” 소수의 중점영역(few key areas)을 구성원의 인터뷰로부터 찾는 것으로서 1979년 하버드경영보고서(Harvard Business Review)에서 제안된 것이며 (Rockart, 1979) 구체적인 내용은 MIT 보고서에도 수록되었다(Bullen & Rockart, 1981). 여기서는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요인들이 어떤 관계의 의하여 성공을 가져다 주는 지에 관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기독교학교연맹(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은 기독교학교의 6가지 탁월성 중대요소를 이사회 거버넌스, 경영 리더십, 학교 생존력, 영성 형성, 학교 문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대학의 생존의 차원에서는 앞 장에서 다루었듯이 크게 정체성의 유지와 재정적 뒷받침을 들 수 있다. 기독교대학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실증연구 논문을 참고하면 (허훈 외, 2021) 두 가지의 핵심요인은 정체성과 재정이다. 그런데 정체성은 광범위하며 사람과 제도에 걸쳐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발현되는 것은 대학문화이므로 이것을 기독교적 분위기 즉, ‘미션 에토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독교적 분위기 또는 미션 에토스에 관한 하나의 논문에서는 성경과 학교규범을 매개로 하는 제반 활동과 특히 이사회와 학교의 장의 역할이 교수자와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미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Everett, 2017). Thomas(2008)의 연구에서도 미션 에토스의 가장 유효한 동인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구성원들의 기독교적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현재의 기독교대학들이 복합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혁신과 적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전략과 수행과정이 전개되어 나가야 하고 이를 추동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즉 리더십은 이사회와 협력하여 학교의 경영을 맡음으로서 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명선언 하에 인재의 발탁, 기획, 평가, 소통의 차원에서(Frawley, 2014) 혁신과 적응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의 대부분 기독교대학들은 외국의 선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설립기와 발전기에는 전적으로 외국의 선교재단의 기금에 의존하였다(이정순, 2022). 그러나 이러한 의존도는 대학이 커지면서 점차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에는 양적팽창에 의해 해결되었다. 또한 재정적 독립을 전후하여 선교재단들은 지배구조에서 물러났으며 모든 것은 한국인의 거버넌스에 맡겨졌다. 그렇지만 거버넌스를 맡은 이사회들은 재정자립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대학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주식의 발행이나 록펠러재단

기금의 유치 등 기금확보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다(Hughes & Adrian, 1997). 따라서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에 파트너십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재정의 확보를 주로 국가의 지원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은 Figure 1 과 같이 정리된다. 다만 이사회와 파트너를 외적 주체로서 취급한다면 현재는 사례대학은 물론 다른 기독교대학들이 강력한 파트너십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내적인 것으로 총 4개의 요인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 에토스’이다. 구성원들의 중요성공요인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측정항목들이 필요한데 현재 문헌조사를 통해서서는 적절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 II 장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것과 저자들의 기독교대학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부록 Table A1과 같이 구성하였다. 세부 측정항목들은 ‘강력한 리더십’의 하위 요소들로는 비전성, 개혁성, 조달력으로 하여 총 7항목을, ‘혁신과 적응력’의 하위 요소들로는 교육혁신, 조직화, 협력화로 하여 총 7항목을, ‘지속가능 재정’의 하위 요소들로는 수입, 관리, 공정성으로 7항목을, ‘미션 에토스’의 하위 요소들로는 교수, 학생, 직원으로 7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28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를 5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분석을 위해서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종속변수로 놓고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잠재변수들을 구성요인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도해 본다. 일반적으로 낯선 주제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연구를 종합하고 저자들의 교수 근무 경험, 행정 경력, 기독교 학문연구 단체 활동, 기독교 학원 선교 활동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수립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 H1. 강력한 리더십은 지속 가능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강력한 리더십은 혁신과 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강력한 리더십은 미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지속 가능 재정은 미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지속 가능 재정은 혁신과 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혁신과 적응력은 미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미션 에토스는 대학 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Figure 2 와 같이 제안하였다. 여기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 대학 성공속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는 강력한 리더십과 대학 성공속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구조방정식모델링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잠재변수(latent variable)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 통계분석 기법이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전통적인 회귀분석과 달리 잠재변수를 다룰 수 있으며 여러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측정변수(observed variable)를 이용하여 잠재요인을 간접적으로 측정 후 이들 잠재요인 간의 이론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한다(곽기영, 2019).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실증적인 방법론으로 두루 사용되며 심리학에 적용한 예와(박소희, 2013 ; 박상희, 2020) 정책학에 사용한 예를(장문영 외, 2019 ; 김성일·이형찬, 2004) 볼 수 있다. Figure 2의 모형 에서 I-모형은 은선이 없는 것이고 II-모형은 은선을 포함하는 것이다. 연구모형 I 은 완전 매개모형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이 미션에토스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매개효과만 존재하고 직접효과는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반면 연구모형 II 는 부분 매개모형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이 미션에토스에 미치는 효과는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직접효과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모형 I과 II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비교해 보고 더 적합한 모형을 가려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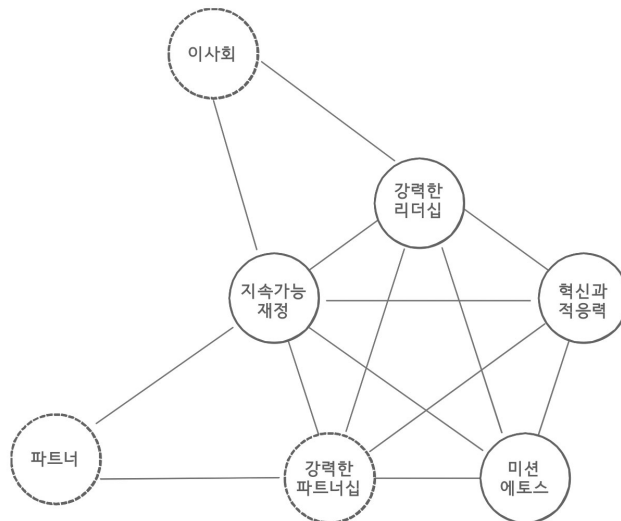


Figure 1.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들과 상관관계도. (은선 항목들은 내부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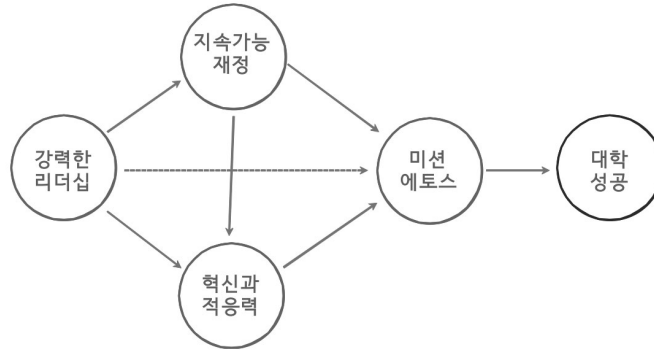


Figure 2.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모형-I은 은선을 포함하지 않고 연구모형-II는 은선을 포함함)

V. 설문조사와 통계분석

V-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고 조사에 응한 인적 통계는 Table 2와 같다. 재직 중인 전임교수의 분포는 2023년 4월 현재 정년계열이 306명(75%), 비정년계열이 100명(26%)이며, 비정년계열 중에서 중점교수 58명, 외국인교수 19명, 연구교수 23명이다. Table 2에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정년계열이 79%, 비정년계열이 21%이며, 근속연수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44%로 10년 이상자 56%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임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61명으로서 응답율이 15%에 그쳐 호응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응답률이 낮은 것을 볼 때, 이러한 조사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도가 낮음을 볼 수 있고, 더불어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분석의 유형에 따른 표본의 크기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며 단순 회귀분석의 경우 최소 표본의 수를 50으로, 변수 대 표본의 수의 비는 1:10 정도이며, 구조방정식에서는 다섯 개 이하의 구성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각 개념이 3개 이상의 항목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0.6 이상이라면 100~150의 표본 수가 적합하다고 하는 연구를 참조해 볼 때(박원우 외, 2010), 본 연구의 표본의 수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적당한 표본의 크기의 결정에 관한 문제는 응용통계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로서 경험칙(rule of thumb), 절대적 크기 기준, 잠재변수 당 관찰변수의 비 기준, 상관계수 또는 결정계수 기준, RMSEA 기준 등이 존재하지만 어느 기준이 더 우

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측정 변수들이 정규성을 충족한다는 판단하에 최대 우도법으로 모수를 추정할 수 있으며 모형의 적절성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구조모형검정의 가능성과 적합성을 판별하고자 한다.

Table 2. 한남대학교 교수의 설문조사 응답자 통계

구분		빈도	퍼센트
지위	비전임	2	3.3
	비정년	11	18.0
	정년제	48	78.7
근무연수	0~9년	27	44.3
	10~19년	17	27.9
	20년 이상	17	27.9
기독교 대학에 대한 인식	대체로 그렇다	29	47.5
	매우 그렇다	28	45.9
	잘 모르겠다	4	6.6
전체		61	100.0

먼저 Table 1과 Table A1의 질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해 보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 값을 구해서 Table 3에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값은 0.7 이상이면 받아들일 수 있으며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므로 모든 질문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3.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과 성공의 속성을 묻는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사

연구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계수
비전성	2	.896
개혁성	3	.929
조달력	2	.814
강력한 리더십	7	.956
수입	2	.890
관리	3	.915
공정	2	.862
지속가능한 재정	7	.949

교육혁신	3	.840
조직화	2	.825
협력화	2	.876
혁신과 적응력	7	.936
교수	2	.870
학생	3	.805
직원	2	.803
미션에토스	7	.915
대학 성공속성	6	.866

V-2. 사례대학의 교수가 인식하는 기독교대학의 성공 속성 결과

6가지의 성공 속성에 대한 응답결과의 분포도를 Figure 3에 표시하였다. Table 1의 각 질문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를 보수적(전통고수), ②에 응답하였으면 문화변혁적, ③에 응답하였으면 적절성(포용 성장), 그리고 ④에 응답하였으면 자유적(시장주도)이라고 구분하였다. 따라서 ‘정체성 신념’의 응답분포도는 보수적(전통고수)에 27.87%, 문화변혁적에 49.18%, 적절성(포용 성장)에 14.75%, 그리고 자유적(시장주도)에 8.2%가 응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②와 ③의 경계에 오각형 마크를 하였고 6가지의 속성마다 오각형 마크를 이어서 은선으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사례대학의 대학 성공의 속성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즉 ‘정체성 신념’과 ‘교육콘텐츠’에서는 보수적이며 문화변혁적인 것을 성공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며, ‘재정확보’와 ‘교수인사’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라기 보다 문화변혁적이며 적절성(포용 성장)을 성공으로 인식하며, ‘직원인사’와 ‘학교분위기’에 있어서는 문화변혁적인 것을 성공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례대학은 ‘재정확보’에서는 개방적으로 다양성과 외부환경의 적절한 수용이 요구되는 반면에 ‘정체성’과 ‘교육 콘텐츠’에 있어서는 전통의 고수와 문화변혁적인 즉, 선교지향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Figure 3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 값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것을 목표 값으로 하는 성공요인들을 찾아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론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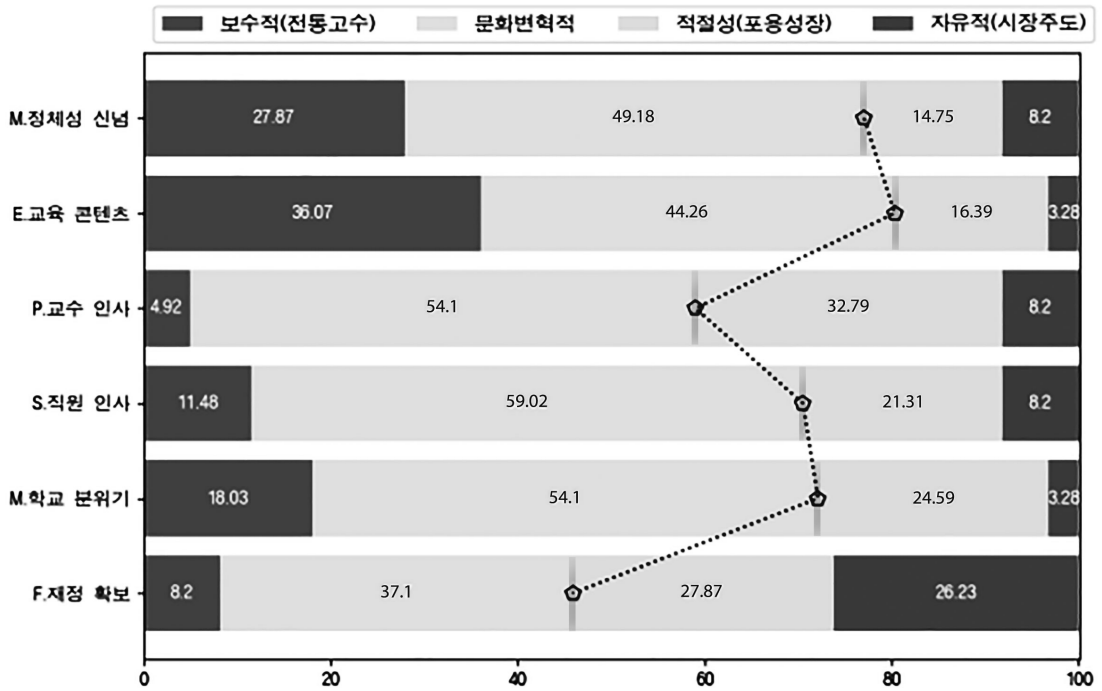


Figure 3. 사례대학의 교수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대학의 성공 속성 프로파일

V-3. 중요성공요인과 성공 속성간의 분석 방법

Table 4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결과이다. 특히 West, Finch, Curran(1995)의 지침서에 따르면,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0과 7.0이하인 것으로 보아 정규성(normality)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었다. 왜도와 첨도가 각각 2와 7이하라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모수를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강력한 리더십이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를 통해 대학 성공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자료가 이론적으로 도출한 인과모형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두 모형 중에서 간명하면서도 적합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은 잠재변수들 간의 가능한 모든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확인적 요인분석 절차인 측정모형 분석과,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구조모형 분석을 차례대로 행하였다.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χ^2 검정,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χ^2 의 유의확률>.05, TLI>.90, CFI>.90,

RMSEA<.10이다(홍세희, 2000). 표준화경로계수를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구하였고, 그것에 대한 유의확률을 추정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단일요인인 대학 성공속성의 경우, 측정의 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신뢰도를 근거로 산출한 측정의 표준오차 제곱 $S_e^2 = S_{\xi}^2(1-r_{xx'})$, 단, $r_{xx'}$: 신뢰도]을 연구모형에 고정모수로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Bollen, 1989).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적인 통계 처리를 위해 SPSS를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Mplus(Muthen & Muthen, 2023)를 활용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이용되었다.

Table 4. 연구변수 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연구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비전성 (1)	1																
개혁성 (2)	.877**	1															
조달력 (3)	.792**	.881**	1														
강력한 리더십 (4)	.931**	.979**	.934**	1													
수입 (5)	.545**	.600**	.594**	.612**	1												
관리 (6)	.711**	.700**	.672**	.730**	.790**	1											
공정 (7)	.636**	.615**	.600**	.647**	.829**	.834**	1										
지속가능한 재정 (8)	.681**	.688**	.669**	.714**	.924**	.946**	.939**	1									
교육혁신 (9)	.712**	.719**	.662**	.736**	.755**	.753**	.760**	.806**	1								
조직화 (10)	.704**	.819**	.766**	.811**	.725**	.770**	.733**	.795**	.847**	1							
협력화 (11)	.592**	.684**	.686**	.692**	.708**	.666**	.635**	.715**	.780**	.822**	1						
혁신과 적응력 (12)	.719**	.789**	.748**	.796**	.781**	.781**	.762**	.827**	.947**	.945**	.916**	1					
교수 (13)	.516**	.423**	.346**	.448**	.439**	.625**	.480**	.561**	.556**	.434**	.364**	.493**	1				
학생 (14)	.554**	.522**	.545**	.564**	.599**	.679**	.660**	.692**	.665**	.609**	.577**	.664**	.739**	1			
직원 (15)	.676**	.580**	.484**	.608**	.669**	.655**	.713**	.721**	.738**	.602**	.524**	.675**	.688**	.777**	1		
미션에토스 (16)	.636**	.561**	.514**	.597**	.629**	.721**	.684**	.727**	.719**	.610**	.547**	.677**	.880**	.941**	.898**	1	
대학 성공속성 (17)	0.097	0.117	0.030	0.092	0.102	0.108	0.009	0.083	0.089	-0.018	0.071	0.054	.413**	.268*	0.233	.330**	1
최솟값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33
최댓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83
평균	3.48	3.13	3.14	3.23	3.06	3.08	2.92	3.03	3.22	3.12	3.15	3.17	2.82	2.93	3.17	2.97	2.76
표준편차	1.06	1.14	1.08	1.05	1.21	1.04	1.11	1.04	0.94	1.09	1.06	0.95	1.07	0.98	1.08	0.94	0.63
왜도	-0.36	-0.29	-0.15	-0.27	-0.16	0.06	0.15	0.16	0.13	-0.21	-0.13	-0.11	0.27	0.18	-0.07	0.13	-0.44
첨도	-0.72	-1.03	-0.86	-1.01	-0.98	-0.68	-0.66	-0.84	-0.61	-0.74	-0.62	-0.63	-0.83	-0.50	-0.87	-0.57	-0.57

* $p < .05$ ** $p < .01$ *** $p < .001$

V-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결과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적합도, 요인 부하량,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χ^2 의 유의확률>.05에서 TLI>.90, CFI>.90, RMSEA<.10이다.(홍세희, 2000)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2 검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chi^2=114.988, p<.001$),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TLI, CFI, RMSEA는 TLI=.900, CFI=.929, RMSEA=.097로서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Table 6에서와 같이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도 0.4를 모두 상회하였다. 이처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은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구조모형 검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는 Table 7과 같았다. 이에 따르면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 에토스는 서로 간에 정적인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션 에토스와 대학 성공속성 간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리더십과 대학 성공속성, 지속가능한 재정과 대학 성공속성, 혁신과 적응력과 대학 성공속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Figure 2와 같은 연구모형과 해당 연구 문제의 설정은 타당하다.

Table 5.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p$	TLI	CFI	RMSEA
114.988 / 56 / .0000	.900	.929	.097

Table 6.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β	s.e.	z
강력한 리더십	비전성	0.890	0.029	30.263***
	개혁성	0.983	0.014	68.022***
	조달력	0.896	0.029	31.399***
지속가능한 재정	수입	0.883	0.034	26.256***
	관리	0.911	0.028	32.441***
	공정	0.919	0.026	34.796***
혁신과 적응력	교육혁신	0.902	0.029	30.584***
	조직화	0.951	0.020	47.753***
	협력화	0.852	0.039	21.952***

	교수	0.799	0.054	14.845***
미션에토스	학생	0.896	0.036	24.665***
	직원	0.875	0.040	21.889***
대학 성공속성	대학 성공속성	0.930	0.013	70.182***

*** $p < .001$

Table 7.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 분석결과

잠재변수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	대학 성공속성
강력한 리더십	.732***	.852***	.628***	.117
지속가능한 재정	-	.879***	.805***	.081
혁신과 적응력	-	-	.733***	.030
미션에토스				.354**

** $p < .01$ *** $p < .001$

2) 구조모형 분석결과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 대학 성공속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I 과 연구모형-II의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Table 8과 같았다. 그리고 연구모형-I 과 연구모형-II 간의 차이도 구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087, p > .05$). 그러므로 Table 8은 연구모형-I 이 더 적절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연구모형-I 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고 후속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Table 8. 연구모형I 과 연구모형II의 적합도 지수와 모형들의 차이 검증

모형	$\chi^2/df/p$	TLI	CFI	RMSEA
연구모형I	122.224 / 60 / .000	.902	.925	.130
연구모형II	122.137 / 59 / .000	.899	.923	.132
모형 비교	$\Delta\chi^2/\Delta df/p$	ΔTLI	ΔCFI	$\Delta RMSEA$
연구모형I vs 연구모형II	.087 / 1 / .768	.003	.002	-.002

** $p < .01$ *** $p < .001$

최종모형인 연구모형-I에서의 직접효과의 크기 및 이에 대한 검증결과인 Table 9과 Figure 4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력한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37, p<.001; \beta=.445, p<.001$).

둘째, 지속가능한 재정은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53, p<.001; \beta=.681, p<.01$).

셋째, 혁신과 적응력은 미션에토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133, p>.05$).

넷째, 미션에토스는 대학 성공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13, p<.05$).

Table 9.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및 중다상관제곱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s.e.	z	R^2
지속가능한 재정	강력한 리더십	0.737	0.068	10.894***	0.543***
혁신과 적응력	강력한 리더십	0.445	0.098	4.528***	0.867***
	지속가능한 재정	0.553	0.098	5.673***	
미션에토스	지속가능한 재정	0.681	0.235	2.900**	0.642***
	혁신과 적응력	0.133	0.243	0.550	
대학 성공속성	미션에토스	0.313	0.132	2.370*	0.09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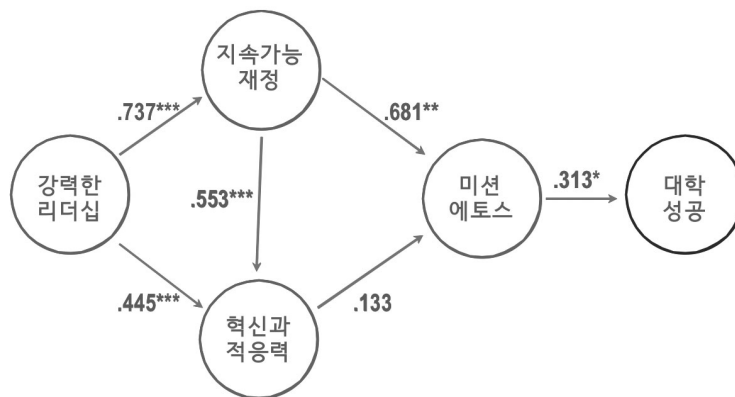


Figure 4.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가 강력한 리더십과 대학 성공속성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았고,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력한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매개로 하여 혁신과 적응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eta=.408, p<.001$).

둘째, 강력한 리더십과 미션에토스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을 매개로 한 매개효과와 총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615, p<.001$). 세부적으로 본다면, 강력한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매개로 하여 미션에토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eta=.502, p<.01$). 그러나 그 밖의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을 통한 개별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강력한 리더십과 대학 성공속성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를 매개로 한 매개효과와 총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193, p<.05$). 그러나,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를 매개로 한 세부적인 개별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3(강력한 리더십은 미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설 H6(혁신과 적응력은 미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을 보여준다. 즉, 기독교 대학의 성공은 강력한 리더십이 지속가능한 재정과 미션 에토스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며, 혁신과 적응력은 강력한 리더십과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인하여 일어남을 시사해 주지만 혁신과 적응력이 미션 에토스를 매개로 한 대학의 성공에는 미미한 수준의 영향을 보여준다.

Table 10.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와 전체효과 결과

종속 변수	매개변수	독립 변수	전체 매개효과		전체효과 (직접+매개)	
			β	s.e.	β	s.e.
혁신과 적응력	지속가능한 재정	강력한 리더십	0.408***	0.081	0.408***	0.081
	지속가능한 재정		0.502**	0.185		
미션 에토스	혁신과 적응력←지속가능한 재정	강력한 리더십	0.054	0.098	0.615***	0.079
	혁신과 적응력		0.059	0.110		
대학 성공 속성	미션에토스←지속가능한 재정	강력한 리더십	0.157	0.089		
	미션에토스←혁신과 적응력 ←지속가능한 재정		0.017	0.032	0.193*	0.086
	미션에토스←혁신과 적응력		0.019	0.035		

* $p<.05$ ** $p<.01$ *** $p<.001$

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개별 대학의 차원이나 연합회의 차원에서 기독교대학의 문제에 대한 연구나 정책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대학이 그 본질과 가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철학적이거나 규범적인 담론의 질적 연구였고 양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문헌조사와 고찰을 통하여 기독교대학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 기후위기 그리고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여전히 교육을 통한 선교의 사명에서 적실함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연합체인 CCCU에서 기독교대학과 관련되는 여러 실증적인 연구들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의 기독교대학들 및 연구자들은 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에 걸맞게 자기 기관들에 대한 조직론, 경영론, 혁신론, 문화론, 역사론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조직론적 관점에서 조직 효능감과 문헌조사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기독교대학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사례대학의 교수들이 인식하는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들을 도출하는 6개의 질문목록(inventory)을 개발하였다. 그 속성들은 ‘정체성 신념’, ‘교육 콘텐츠’, ‘교수 인사’, ‘직원 인사’, ‘학교 분위기’ 및 ‘재정 확보’이다. 그리고 그 응답결과를 사용하여 각 속성의 수준들을 측정하였다. 이것은 이론연구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교수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생각한 결과물이라는 데서 매우 실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속성은 대학의 성공의 목표 값으로 분명히 설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경험하는 무지향성의 바다에서 등대와 같은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사례대학의 경우, 정체성과 교육에 있어서는 문화 변혁적이며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교수인사, 직원인사, 학교분위기에 있어서는 문화 변혁적이며 적절성(포용성장), 재정확보에 있어서는 적절성(포용성장)과 시장주도를 반영하는 것을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얻어진 성공속성 프로파일은 어떤 대학이 구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성공속성을 목표 값으로 할 때, 그 성공을 위한 중요성공요인들을(CSFs) 분석하기 위하여 총 4개의 잠재요인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28개의 질문목록(inventory)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질문목록은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연구와 혁신이론, 그리고 저자들의 20년 이상의 교수 근무 경험, 기독교 학문연구 및 학원선교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성공에 중요한 4개의 잠재요인들은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 에토스’이며 이 요인들이 어떻게 상관되

며 매개되어 대학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2가지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안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기법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질문목록은 성공속성과 성공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타당하였다.

둘째, 사례대학의 성공속성 프로파일(Figure 3)은 ‘정체성 신념’과 ‘교육 콘텐츠’에서는 보수적이며 문화 변혁적인 것으로, ‘교수 인사’에서는 문화 변혁적이며 적절성(포용성)인 것으로, 그리고 ‘재정 확보’에서는 적절성(포용성)과 시장주의로 나타난 것을 볼 때, 6개의 성공속성 마다 다른 정책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셋째, 성공 구조방정식을 위한 가설수립과 확인적 요인분석법을 통하여 연구모형-1이 채택되었으며 “대학의 성공은 ‘미션 에토스’를 매개로 일어나며 ‘미션 에토스’는 ‘강력한 리더십’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정’과 ‘혁신과 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보였다. 구체적인 경로의 적재 값들은 Figure 4에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문헌조사 연구를 통한 기독교 대학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질적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조직론 연구와 저자들의 실제적 경험을 통합하여 양적연구를 제안하고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수가 다소 부족하고 엄밀한 집중 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 분석 등은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한 기독교대학의 운영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동기로 하여 향후 다양한 세부적인 연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부 록

Table A1. 잠재변수로서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들과 측정 질문들

변수: '강력한 리더십'		
번호	문항	선택
A1	대학의 리더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 - 대학의 설립이념에 부응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하지 않음 • 약간 기여함 • 대체로 기여함 • 상당히 기여함 • 매우 크게 기여함
A2	대학의 리더는 팀워크와 소통능력을 발휘한다. - 공동체에서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며, 학교 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	
A3	대학의 리더는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보여 준다. - 당면한 위기와 도전을 구체화하여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공동체가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A4	대학의 리더는 인사 측면에서 개선하고 개혁한다. - 우수한 교수진과 직원들을 모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 그리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 성과에 따른 승진 기회 제공	
A5	대학의 리더는 재무 측면에서 개선하고 개혁한다. - 학교의 재정 건정성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를 수행하여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운영, 투명한 재무보고	
A6	대학의 리더는 재무 측면에서 외부 재원을 유치한다. - 연구 자금, 교육 자금 및 대학 기부금의 확충	
A7	대학의 리더는 지역사회와 대학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 한다. -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유치	

변수: '혁신과 적응력'			
번호	문항		선택
B1	교육 혁신	미션 대학의 핵심가치와 교육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하지 않음 • 약간 기여함 • 대체로 기여함 • 상당히 기여함 • 매우 크게 기여함
B2		대학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B3		교수 및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를 한다.	
B4	조직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조직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적시에 도입한다.	
B5		기술혁신과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이를 활용한 교육 및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품질을 향상시킨다.	
B6	협력화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B7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해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인지도와 경쟁력을 확보한다.	

변수: '지속가능 재정'			
번호	문항		선택
C1	수입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하지 않음 • 약간 기여함 • 대체로 기여함 • 상당히 기여함 • 매우 크게 기여함
C2		다양한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여 자금 확보를 강화한다.	
C3	관리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	
C4		학생 모집, 연구 수주, 사업 수주 및 수익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를 도입한다.	
C5		학교 운영과 연구 등 핵심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의 설정과 자원의 분배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한다.	
C6	공정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과 보고서 공시 등을 시행한다.	
C7		비즈니스 분야와 대학 재정관련 법규에 기반 한 최신의 재정 모델을 도입하고 재정 운영을 개선한다.	

변수: '미션 에토스(ethos)'		
번호	문항	선택
D1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하지 않음 • 약간 기여함 • 대체로 기여함 • 상당히 기여함 • 매우 크게 기여함
D2	교육적 지향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신앙과 학문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D3	성경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D4	학생들에게 청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현대적 소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루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윤리와 영성을 경험하게 한다.	
D5	학생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기독교적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D6	교내에 조형물, 건축물, 행사 등에서 학교의 설립이념과 철학에 맞는 상징들을 사용한다.	
D7	교수와 직원이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른 학문적 노력과 기독교적 분위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한다.	
	직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며 사랑, 공정, 포용의 가치를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참 고 문 헌

- 곽기영 (2019). R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정차 및 방법, **지식경영연구**, 20(1), 1-26.
- 김남순·이기석 (2023).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이야기: 서의필 목사의 한국 선교**, 동연.
- 김동우 (1998). **한국 기독교대학의 교육이념과 정체성위기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성일·이형찬 (2004).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성 분석, **국토연구**, 41, 53-68.
- 김세열 (1997). 한국의 기독교대학과 아시아적 조망. **21세기의 아시아와 기독교대학**, 10, 7-13.
- 박문식 (2010).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대학교육개혁의 기독교적 고찰, **신앙과 학문**, 15(3), 47-76.
- 박문식 (2023). **한남대학교 교수의 기독교대학 인식조사 및 대학성공속성 분석,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247-286.
- 박상희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습된 무기력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박소희·조민아 (2013).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행동과 자기결정성 동기, 학업 자아개념, 인지적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10), 263-289.
- 박원우·손승연·박해신·박혜상 (2010). 적정 표본크기(sample size) 결정을 위한 제언, **노사관계연구**, 21, 51-85.
- 박진경 역 (1989). **기독교 대학의 이념**. Holmes, A.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s*. (Revised Ed.), 서울: CUP.
- 양승훈 (1996). 기독교대학, 그 이상을 꿈꾼다. **빛과 소금**, 11, 30-32.
- 오은수 (1996). 기독교 대학교육의 문제점. **기독교사상**, 10(4), 76-81.
- 오종향 역 (2016). **팀 켈러의 센터 처치**. Timothy Keller (2012). *Center Church*., 서울: 두란노서원.
- 육성득 (2021). 대학문제: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과정과 정체성, 1913~1917. **동방학지**, 196, 353-386.
- 이동수 (2008). 조직문화유형 척도 OCAI의 측정 속성적 건전성. **사회과학논총**, 27(1), 373-394.
- 이신형 (2014). 기독교대학 정체성 회복을 위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40, 129-171.
- 이원설 (1998). 하나님 중심 세계관과 학문, **기독교언어문화소식**, 2, 57-65.
- 이은실 (2012).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35, 33-67.
- 이정순 (2022). **과학자 계의돈(Dr. Robert L. Geette)박사의 한국 선교이야기(개정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장문영·김방룡·이찬구 (2019).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 **기술혁신학회지**, 22(3), 475-502.

- 정선희 역 (2017). **하나님의 사람 문명사학자 송계 이원설 박사**. 서울: 그리스심.
- 조성국 (2005). 기독교대학교의 유형과 상황. **고신신학**, 105-134.
- 조용훈 (2003).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통합연구**, 16(2), 193-224.
- 조용훈 (2009). **기독교 대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최영근 (2020).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 아그네스스캇대학의 사례연구-. **대학과 선교**, 43, 129-170.
- 최영근 (2022). **인본의 생애와 기독교 정신**. 서울: 한국교회총연합(UCCK).
- 최영근·송현강·이재근·이진구·한규무 (2022). **미국 남장로회 교육선교 연구**. 서울: 도서출판 동연.
- 허훈·최무렬·이경미 (2021).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독교대학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생명과 말씀**, 31, 301-336.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ollen, K.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Chapel Hill, NC: John Wiley & Sons, Inc.
- Bullen, C. V. & Rockart, J. F. (1981). A Primer On Critical Success Factors, *CISR*, No. 69, MIT.
- Cooke, R. A. (1997). *Organization Effectiveness Inventory*, Arlington Heights, IL.
- Dockery, D. & Gushee, D. (1999).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 introduction*. Nashville, TN: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 Everett, G. R. (2017). *An exploration of factors which affect the Christian ethos of Christian schools: A comparative case study analysis of two Christian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 Frawley, R. (2014). The impact of leadership on the role and mission of a Christian college. *Journal of Applied Christian Leadership*, 8(2), 34-48.
- Hughes, R. & Adrian, W. (1997).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m. B. Eerdmans-Lightning Source. Grand Rapids, MI.
- Marsden, G. (1993).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then, L. K. & Muthen B. (2023). *Mplus user's guide*. Los Angeles: Muthen & Muthen.
- Obenchain, A., Johnson, W. & Dion, P. (2004). Institutional types, organizational cultures, and innovation in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Christian Higher Education*, 3, 15-39.
- Reynolds, J. & Wallace, J. (2016). Envisioning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Leadership for embracing, engaging, and executing in a challenging Landscape. *Christian Higher*

- Education*, 15(1-2), 106-114.
- Rockart, J. F. (1979). Chief executives define their own data needs. *Harvard Business Review*, 57, 81-93.
- Thomas, J. C. (2008) Administrative, faculty, and staff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climate and commitment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7, 226-252.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 Woodrow, J. (2006). Institutional mission: The soul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5, 313-327.
- “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Asia.” <https://www.acuca.net/newacuca/>
(검색일 2023.7.1.)
-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https://www.ccu.org> (검색일 2023.7.1.)

기독교대학 교수의 인식조사에 의한 중요성공요인의 분석과 성공구조방정식 모형 연구

Analysis of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study of success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perception survey of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s

박문식 (한남대학교)

김재철 (한남대학교)

논문초록

대전환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은 어떤 위치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찰해 본다. 그리고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기독교 대학의 지속가능성의 위기 속에서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들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역사적이며 이론적인 논문들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현시대에 필요한 기독교 대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고찰한다.

다가올 시대에 기독교 대학이 유지되며 발전되어 성공하기 위해서 기관 및 연합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노력과 연구들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기독교 고등교육기관 및 연합체들은 다양한 이론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헌 조사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대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체성에 관한 질적연구이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독교 대학의 운영에 관한 연구는 부재함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양적연구의 시도로서 사례대학으로서 한남대학교의 경우, 교수들의 인식을 연구 조사하여 기독교 대학의 성공의 속성과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와 조직론, 혁신론, 그리고 20년을 넘게 기독교 대학에 근무해 온 경험 및 기독교 학문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기독교 대학의 성공속성과 중요성공요인을 찾기 위한 질문 목록(inventory)을 개발하였다. 질문 목록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계적 기법인 구조방정식모형을 수립하고 기독교 대학의 성공을 위한 중요성공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들을 확인적 요인분석법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기독교대학, 대학성공속성, 중요성공요인, 확인적 요인분석법, 성공 구조방정식